

◆ 02 수능 23~26번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말'이란 ㉠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팔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덮밥, 책꽂이, 건널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덧셈, 뺄셈,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등의 용어들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담이, 신문팔이, 아빠, 끈끈이, 맞춤, 병따개, 비웃'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나)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뚝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뚝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 조어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든가 ㉤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남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다는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며 '깨끗'과

같은 어근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 주는 예들이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8점]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24.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의 개구리를 가리키는 '황소개구리'
- ② ㉡: 일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여자 점원을 부를 때 쓰는 '언니'
- ③ ㉢: 부사 '몰래'와 명사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
- ④ ㉣: 동사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만든 '먹거리'
- ⑤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꼴'

25. 문맥상 ㉡가 뜻하는 것은?

- ① 신개념 생성
- ② 실제적 필요
- ③ 참신한 표현
- ④ 학교 교육
- ⑤ 민족 정서

26. 윗글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요즘 휴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가워(요)', '컴퓨터'를 '방가', '컴'으로 바꿔 쓰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 ①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 ② 기존 표현을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에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 ③ 글자 입력 속도를 고려하여 단어의 길이를 줄인 말이다.
- ④ 어법에 어긋나게 단어의 일부만 써서 만든 말이다.
- ⑤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만 호응을 얻는 말이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물이 새로 생기거나 사물의 모양이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낱말이 생기거나 변화하게 된다. 즉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고의 체계가 정밀해질수록 더 많은 낱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지금 풍부한 낱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성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말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어에 중국에서 많은 한자어가 유입되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몽골, 만주, 일본 등에서 유입된 말들이 조금씩 섞여 있다. 외부로부터의 문물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입된 다양한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였다. 그런데 일본어는 우리 민족에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어서 우리말에서 일부 뽑아 버린 일이 있다.

근대화 시기에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우리에게도 국어의 의미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자신이 우리말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으며, 이것은 우리말 조어능력의 상실로 이어졌다. 유입되는 외래어에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우리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어법 논란에 휘말려 폐기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근대 학문을 하는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동식물 이름에서는 멋진 우리말 이름을 지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동식물의 신조어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말 조어력의 한계만 탓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하다.

우리말은 형태소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낱말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한 분은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1908~1950) 선생이다. 일본에서 농업 분야를 연구하면서 나비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귀국하여 우리나라 나비를 채집하기 시작했고, 채집한 나비에 우리말 이름을 붙였다. 그는 새로운 나비를 발견하고 ‘부전나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비의 날개가 부전처럼 보여서 ③부전나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부전이 뭐지?’ 하며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부전은 원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노리개로 차던 것인데 그 모양이 비슷해서 장구의 줄을 고르도록 끼워놓은 사피(斜皮)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진틀의 모서리에 끼우는 세모꼴 거덜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석주명 선생은 나비의 날개 모양에서 부전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 나비를 부전나비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곤충뿐 아니라 여러 동식물 이름을 짓는 데도 이 방법이 원용되어 수많은 우리말 동식물 이름이 만들어졌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말에는 다양한 외래어가 들어와 있다.
- ② 낱말은 사물의 생성·변화에 따라 태어나고 변화한다.
- ③ 우리말은 형태소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④ 석주명 선생은 나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말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 ⑤ 근대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우리말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다.

49. ㉠와 유사한 방식의 이름이 아닌 것은? [1점]

- ① 솔이끼 ② 접시꽃 ③ 쫄신벌레
- ④ 돌미나리 ⑤ 오리너구리

50.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 주장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단어는 물 이상의 의미 요소가 복합된 언어 단위이다. 특히 이러한 의미 요소가 복합된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이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이다. 복합어가 형성될 때는, 어근들끼리 결합하거나(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는(파생어) 등, 형태 요소들의 결합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복합어의 경우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형태에서 출발하여 의미를 설명하는 형태 중심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형태를 설명하는 의미 중심의 연구이다. ‘산사람’을 예로 들어 볼 때, 형태 중심의 연구에서는 ‘산’과 ‘사람’이라는 형태가 결합하면서 어떻게 <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가의 과정을 추론해 내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의미 중심의 연구에서는 <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산’과 ‘사람’이 선택되어 일정한 순서로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데 단어의 형태가 그 단어의 의미를 항상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㉓ ‘총잡이’는 <총을 잡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의미하고, ㉔ ‘구두닦이’는 단순히 <구두를 닦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구두를 닦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잘 쏘는>, <직업적으로> 등의 의미가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 중 그 어느 것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잘 쓰는>, <직업적으로> 등의 의미가 단어 형성 과정에서 특별하게 주어졌다거나, 단어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진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단어는 새로운 형태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표현할 형태가 나중에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를 언어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형태의 단어가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 ‘때밀이’라는 말은 <때를 미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치칭하기 위해 ‘때, 밀-, -이’라는 형태들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때를 미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때밀이’라는 단어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며, 그래서 ‘때밀이’의 형태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단어의 형태가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어의 형태를 토대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즉, 단어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형태를 설명하는 연구를 지향할 때 단어의 형태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근과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는 복합어이다.
- ② 의미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태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 ③ 형태 중심의 연구는 형태가 결합하면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과정을 추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④ 의미 중심의 연구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후에 이를 표현할 형태가 선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⑤ 단어의 형태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모두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미 중심의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49.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사과잡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만약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과’와 ‘접시’라는 형태를 결합하여 ‘사과접시’라는 형태의 단어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의미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 ㄱ. 사과를 깎아 놓는 데 쓰는 접시
- ㄴ. 사과 모양의 접시
- ㄷ. 사과로 만든 접시
- ㄹ. 사과를 먹을 때 쓰는 접시
- ㅁ. 사과를 보관할 때 쓰는 접시
- ⋮

- ① 단어가 형성된 후 새로운 의미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 ② 두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③ 의미 요소만이 아니라 형태 요소들의 결합도 함께 이루어졌다.
- ④ 각 형태 요소들의 의미만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 ⑤ 단어의 형태가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50.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 ~ ㉣의 ‘-이’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 ① 손잡이 ② 품앗이
③ 글쓴이 ④ 한해살이
⑤ 철판구이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어 형성의 과정에서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런데 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르게 된다.

- (1) 구두담이, 옷걸이, 성냥팔이
(2) 맨눈, 맨몸, 맨손
(3) 길이, 높이, 깊이

(1)의 ‘구두땀이’, ‘웃걸이’, ‘성냥팔이’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이’는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 결합한다는 제약을 갖는다. 이와 같이 파생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것을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음운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2)의 ‘맨눈’, ‘맨몸’, ‘맨손’은 어근에 접두사 ‘맨-’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맨-’과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는 대체로 명사이다. ‘맨-’뿐 아니라 ㉠ 대부분의 파생접사들은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한다. 이를 형태·통사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3)의 ‘깊이’, ‘높이’, ‘깊이’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척도명사가 파생된 것이다. ‘짧이’, ‘낮이’, ‘얕이’가 성립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척도명사 파생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내지 가치를 지니는 어근만이 사용된다. 어근의 의미상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을 의미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한편, 파생 규칙에 따라 단어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작용하기도 한다.

- (4) 길기*, 높기*, 깊기*

위에서 언급한 ‘-이’뿐 아니라 ‘-기’도 ‘밝기, 굵기, 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척도명사의 파생에 참여한다. 그런데 (4)에서 볼 수 있듯이 ‘깊기, 높이, 갱기’가 불가능한 것은 이미 ‘깊이, 높이, 갱이’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더라도, 의미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저지 현상(blocking)이라 부른다.

* *: 문법에 맞지 않음을 표시하는 기호.

48. 위 글에 적용된 설명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ㄱ. 현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 ㄴ. 현상을 다른 현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 ㄷ. 구체적인 예를 통해 현상을 설명한다.
- ㄹ.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 ① \neg , \perp
② \neg , \sqsubset
③ \perp , \sqsubset
④ \perp , \sqsubseteq
⑤ \sqsubset , \sqsubseteq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가 파생어이다.
- ② 파생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것이 음운론적 제약이다.
- ③ 부정적인 가치 내지 의미를 지닌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저지 현상이다.
- ④ 대부분의 파생접사들이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것이 형태·통사론적 제약이다.
- ⑤ 어근의 의미상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이 의미론적 제약이다.

50. ㉠과 관련하여 접사와 그 사례를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사례
①	-보	검보, 울보, 똥똥보
②	-꾸러기	말썰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③	만-	만딸, 만며느리, 만사위
④	-아치	동냥아치, 벼슬아치, 시정아치
⑤	꽃-	꽃고추, 꽃과일, 꽃사랑

◆ 11년 3월 고3 44~46번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어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인 어근과,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인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가 이와 같이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생어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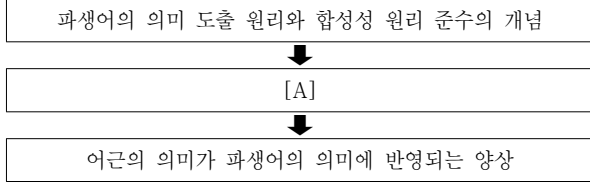
파생어 ‘결레질’은 그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 파생어의 의미는 그 어근인 ‘결레’의 의미와, 동작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인 접사 ‘-질’의 의미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비질’은 ‘곡식의 검부러기, 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키 따위로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곤충인 ‘나비’의 의미와 ‘-질’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수 없다.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된 말인 파생 명사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반면, ‘먹-’과 접사 ‘-이’의 결합형인 ‘먹이’의 의미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어야 할 거리’나 ‘사육하는 가축에게 주는 먹거리’로 한정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의 모든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파생어의 의미는,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위의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이’의 의미는 ‘먹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단어의 중심적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의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어근의 의미 중 반드시 하나만이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길다’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길이’는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와 ‘어느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등의 의미를 갖는다. ‘길다’의 여러 의미가 파생 명사인 ‘길이’의 여러 의미에 반영된 것이다.

44. 위 글의 내용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합성성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 ② 합성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 검토
- ③ 합성성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④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
- ⑤ 합성성의 원리에 기초한 어근의 의미 변화 설명

[45 ~ 46] <보기>와 관련하여 45번과 46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 국어대사전 검색

풀이

「1」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2」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 또는 그 결과.

풀다

「1」 묶이거나 감기거나 얹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2」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3」 마음에 맺혀 있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4」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

-이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4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1」 ~ 「4」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풀이 「1」’은 어근과 접사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 ③ ‘풀이’의 ‘-이’는 ‘먹이’의 ‘-이’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 ④ ‘풀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⑤ ‘풀다’에서 ‘풀-’은 다의적인 어근이다.

46.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를 확장시킨 사례로 제시한다.
- ② 파생어의 의미에 의해 어근의 의미가 결정된 사례로 제시한다.
- ③ 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 ④ 파생어에서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⑤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 11 수능 37~39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되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낯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땀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3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38.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39.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뻘뻘하다 ○ 연필	㉠	가락연필	…… ①
		㉡	뻘뻘한연필	……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새콤달콤하다 ○ 국수	㉣	부드럽국수	…… ④
		㉤	새콤달콤국수	…… ⑤

◆ 04 수능 34~38번

[34 ~ 38]

가

가

가

가 (選擇可能項)

가

가

3

가

(文法範疇)

가

“ 가 () / ”

가

가

◆ 06년 9월 고2 24~27번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 하면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와 ‘람’으로 떼어서 말하면 ‘사람[人]’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처럼 더 이상 분석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形態素)라고 한다.

‘콩나물밥’이라는 단어는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을까? ‘콩’, ‘나물’, ‘밥’이 각각 의미를 지니므로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 중 ‘나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와 ‘물’로 떼어 놓으면 ‘나물’이 지니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인 것이다. 또한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에서 ‘-는’, ‘-었’, ‘-겠’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이제 형태소를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 (1) 가. 철수는 학교에 간다.
나. 어디에 가니?
다. 철수는 벌써 학교에 갔다.
(2) 철수가 어디에 가니?

우리는 위의 예문에서 (1)의 밑줄 친 부분에 있는 ‘가-’는 모두 동일한 형태소이고, (2)의 ‘가’는 (1)의 ‘가-’와는 다른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의 ‘가-’와 (2)의 ‘가’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산의 나무가 크다.
(4) 들판의 풀이 파랗다.

(3)의 ‘가’와 (4)의 ‘이’는 모두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같은 자리, 즉 주격 조사의 자리에 분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 형태는 다르더라도 의미가 같고 분포하는 자리가 같을 때, 이를 별개의 형태소가 아닌 동일한 형태소로 본다. 이것을 이형태(異形態)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 가’나 목적격조사 ‘을, 를’,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 -았-’ 등은 비록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 각각이 분포가 같고 서로 같은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한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태에는 위와 같은 것들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가 있다. ㉠ ‘값’은 ‘값이’에서는 /값/으로, ‘값도’에서는 /갑/으로, ‘값만’에서는 /갑/으로 소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값/, /갑/, /갑/을 형태소 ‘값’의 이형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형태소’라는 말에서 형태란 어떤 형태소를 나타내는 소리의 묶음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형태를 왜 인정해야 할까? 그 이유는 형태는 같지 않으나 분포와 의미가 서로 같은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들을 서로 다른 형태소에 포함하는 것보다 한 형태소에 포함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각각 다른 형태소로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많아지게 되고, 사전의 표제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형태들은 되도록 한 형태소 또는 한 낱말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그 쓰임이 다소 달라진 것은 각기 이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24 위 글을 통해 형태소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깨달았어.
②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군.
③ 단어의 하위 요소가 형태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④ 사전에 실린 표제어는 모두 한 개의 형태소이겠군.
⑤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형태소도 존재할 수 있겠군.

25 위 글의 설명 방식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 ㄱ. 예문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ㄴ. 용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ㄷ. 설명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고 있다.
ㄹ. 통계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않-’과 ‘못’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노력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 내가 못 간 것은 몸이 아파서이다.

- ① 형태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
② 의미와 분포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이형태의 관계가 된다.
③ 의미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
④ 형태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가 된다.
⑤ 형태는 다르지만 분포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다른 형태소가 된다.

27 ㉠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입력 장치는 키보드와 마우스이다.
②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눌 수 있다.
③ 우리 반에서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2명이다.
④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흘러간다.
⑤ 김○○ 씨는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부장, 동호회에서 회장으로 불린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구조로 볼 때, 단일 명제로 구성된 단문(홀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들이 결합된 복합문(겹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단일 명제로 된 문장들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명제들의 계층적 결합 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이 된다. 또한, 여러 문장들이 내포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①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접속에 의한 결합과 내포에 의한 결합의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접속에 의한 결합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명제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데, 다음 예 문은 접속에 의하여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한 문장이다.

철수는 과자를 좋아하지만 영화는 사과를 좋아한다.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결합되는 명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내포에 의한 결합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종속되거나 다른 명제의 일부가 된다. 내포에 의한 결합 방식에는 보문에 의한 내포와 관계절에 의한 내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문에 의한 내포는 어떤 명제에서 비어 있는 요소, 즉 ‘무엇’이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철수는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 = 눈이 내리다)
→ 철수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관계절에 의한 내포에서는 어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의 한 요소를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되는데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빨갭다)
→ 철수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명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장을 응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생략과 대명사화, 대동사화 등이 있다.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철수는 물을 마셨다.
→ 철수는 사과를 먹고, 물을 마셨다.

대명사화는 한 문장 안에서 복잡한 요소 대신에 대명사와 같은 단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인데 대동사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용감한 학생은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그는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다.
→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그랬다.

30. 위 글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결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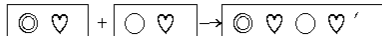
· 접속  ... ①

· 내포  ... ②

○ 문장 성분의 응축 방식

· 생략  ... ③

· 대명사화  ... ④

· 대동사화  ... ⑤

31. <보기>를 ㉠에 따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3점]

<보 기>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ㄷ. 철수는 영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었다.

접속에 의한 결합 보문에 의한 내포 관계절에 의한 내포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32. <보기>의 ㉠~㉥를 ㉠에 따라 고친 문장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준서는 걸어서 도서관에 갔다.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 준서가 도서관 앞에서 민서를 만났다.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준서를 만났다. ㉢ 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민서도 준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 준서는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다. 민서가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준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① ㉠ : 준서는 걸어서,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② ㉡ : 준서와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만났다.
③ ㉢ : 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고, 민서도 준서에게 그랬다.
④ ㉣ : 민서가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는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⑤ ㉤ :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도 그녀에게 그랬다.

◆ 06년 10월 고3 33~36번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인 조사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기능이나 용법을 규명하는 일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가)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다) 염소와 말이 풀을 먹었다.

(가)의 ‘삼국지’에는 ‘를’이 붙어 있는데, ‘를’은 ‘삼국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지만 (나)의 ‘삼국지’ 뒤에 붙은 ‘는’은 ‘삼국지’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나)는 ‘영수가 삼국지가 아닌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를 격조사라 하고 후자를 보조사라 한다.

(다)에서 ‘와’는 ‘염소’와 ‘말’을 병렬적으로 이어주는데, 이처럼 ①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라 한다. ‘와’와 같은 조사를 격조사가 아닌 접속조사로 따로 나눈 것은 그 기능이 격조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가 붙은 체언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언은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진 모든 체언이 한 덩어리로 문장 성분이 된다.

(다)와 (가)를 비교해 보면, 주어 자리의 조사가 ‘가’에서 ‘이’로, 목적어 자리의 조사가 ‘를’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은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바뀐 쌍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립형식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이다. 자립형식이란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붙지 않고도 단독으로 문장 속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은 어미가 붙는 말들과 견주어 보면 뚜렷해진다. (가)에서 ‘-었-’이 붙은 ‘읽-’이나 ‘-다’가 붙은 ‘읽었-’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다. 국어 문법에서 ‘가, 를’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고, ‘-었-, -다’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앞에서 조사를 설명할 때 무엇에 붙어 쓰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사나 어미처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말들을 접사라

한다. 접사 가운데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것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에서 ‘-를’이 그것인데 이것을 파생접사라 한다. 흔히 좁은 의미로 접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를’은 자립형식인 체언에 붙는 것이어서 조사와 혼동하기가 쉽다. 이 ‘-를’을 조사가 아닌 파생접사라고 하는 까닭은, 조사는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어휘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에 다 붙을 수 있지만 ‘-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33 위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1점]

- ① 조사의 문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 ②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는가?
- ③ 조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조사의 형태 바뀔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⑤ 조사는 파생접사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34 위 글로 수업을 한 후 선생님이 <보기>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

격조사와 보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① 그것들이 붙은 말의 자립성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말에 붙어 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일 어휘 범주에서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가, 뜻만을 더해 주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⑤ 그것이 붙은 체언이 단독으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3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낙엽을 태우는 냄새같이 좋은 향기가 있을까?

- ① ‘낙엽, 향기’에 붙은 ‘이’와 ‘가’는 서로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② ‘좋은’의 ‘은’은 자립형식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이다.
- ③ ‘냄새같이’에서 ‘같이’는 국어 문법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 ④ ‘낙엽이’에서 ‘낙엽’은 ‘이’가 붙지 않아도 문장에 단독으로 쓰인다.
- ⑤ ‘하늘’에 붙은 ‘은’과 ‘낙엽’에 붙은 ‘이’는 문법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

36 ㉠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루하고 먹하고 가져 오너라.
- ② 술에 밥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 ③ 머투랑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 ④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흠어져 있었다.
- ⑤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 11년 11월 고2 36~38번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선물을 영희에게 주었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은 ‘철수가’, ‘선물을’, ‘영희에게’이다. 이들은 각각 서술어 ‘주다’에 대해 ‘행동주(A)’, ‘대상(T)’, ‘도착점(G)’의 역할을 한다. 이것의 집합 [A, T, G]를 서술어 ‘주다’의 논항구조라 한다. 즉 **논항구조**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들의 의미 역할 집합을 말한다.

논항구조는 서술어, 특히 본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이는 본동사가 문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1) ㄱ. 철수가 영희를 만나 주었다.

ㄴ.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1-ㄱ)의 논항구조는 [A, T]로 본동사 ‘만나다’의 논항구조와 일치하며 ‘주다’의 논항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1-ㄴ)처럼 보조동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를 통해 보조동사가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2) ㄱ.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던져 주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던졌다.

ㄷ.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던져서 주었다.

(2-ㄱ)의 ‘주다’는 (2-ㄴ)처럼 생략 가능한 보조동사로도, 또는 (2-ㄷ)처럼 본동사로도 해석된다. 본동사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선행동사 ‘던지다’와 후행동사 ‘주다’의 논항구조가 [A, T, G]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행동사가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논항구조가 같으며 필수성분의 의미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3) ㄱ. 나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ㄴ. 나는 그녀에게 책을 읽었다.

(3-ㄴ)처럼 보조동사 ‘주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본동사 ‘읽다’의 논항구조가 [A, T]라면 (3-ㄱ)의 경우 ‘그녀에게’라는 ‘도착점(G)’과 관련된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동사 ‘주다’가 ‘도착점(G)’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조동사 ‘주었다’에 ‘주다(與)’의 어휘의미가 남아 있어 ‘도착점(G)’이 요구되므로 보조동사 ‘주었다’가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조동사의 논항구조는 문장 사용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문장의 논항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2유형은 선행동사와 논항구조가 일치하는 것이며, 제3유형은 문장의 논항구조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서술어는 논항구조에 포함된다.
- ② 논항구조는 주어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논항구조는 본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다.
- ④ 보조동사는 본동사의 논항구조와 동일할 수 없다.
- ⑤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필수성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없다.

37. 다음 중에서 **논항구조**가 다른 하나는?

- ① 우리는 우유를 많이 마신다.
- ② 아름다운 새가 노래를 부른다.
- ③ 신사는 소년을 양자로 삼았다.
- ④ 소녀는 복잡한 책상을 정리했다.
- ⑤ 그는 무 한 다발을 단숨에 썰었다.

38.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a. 친구가 내 신발을 가져가 버렸다.
- b. 사장은 과장에게 중책을 맡겨 보았다.
- c. 재단사는 임금님께 옷을 만들어 바쳤다.

- ① a의 '버렸다'는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군.
- ② b의 '보았다'는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는군.
- ③ b의 '과장에게'는 '보았다'의 논항구조와 관련이 없군.
- ④ c의 '바쳤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군.
- ⑤ c의 '바쳤다'에는 도착점(G)을 요구하는 어휘의미가 남아 있군.